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11월

선교편지 제 137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보낸 지난 13여년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년 내내 더위 속에서 아내와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 왔음을 기억할 때, 아무래도 저희 부부는 선교사 체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곳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제가 두 번, 그리고 제 아내가 한 번 '뎅기 모기'에 물려서 병원 신세를 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변의 선교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가끔 심각하지 않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다름아닌 '배탈' 입니다. 이곳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수도물과 지하수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회사가 이 지역 근방에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물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도를 틀면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그릇에 담아 일정 시간 놓아 두면 누런 색의 침전물이 바닥에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는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샤워나 세탁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또는 교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그 누구보다도 맛있게 먹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식사를 하는 중에 혹시 수도물과 지하수로 만든 이 음식으로 인해서 배탈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잘하고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만 유별나게 별도로 음식이나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이겨 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탈'과 관련된 약은 물론이고, 때때로 복용해야 하는 '구충제'는 상비약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험한 배탈은 여느 때와는 다른 매우 심한 것으로 탈수를 염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집이 아닌 밖에서 식사를 한 것은, 주일 예배를 섬겼던 찬양팀을 포함한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과 교인 중의 한 가정에서 이사를 하여 심방을 하고 그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인데, 제 아내와 함께 동시에 심한 '배탈'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식사량을 최대한 줄이고 맑은 죽 정도를 먹을 뿐인데, 이곳의 민간 요법은 세끼 모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원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 속에 빈공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3주간 동안 배탈로 고생을 하였고, 마침내 체중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맑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

 지난 10월25일 주일을,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카톨릭 국가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카톨릭을 믿고 있는 이곳은, 나라 전체가 카톨릭 종교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종 절기를 국가적으로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관공서, 심지어 상점에도 카톨릭을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가정마다 신실한 카톨릭 신자임을 알 수 있는 각종 조형물과 사진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카톨릭 전례에 따라 이름을 짓고, 마침내 장성하여 성인식을 치르고, 장례식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카톨릭 전통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뺏속까지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심지어 디고스 교회와 아팔라야 교회를 출석하는 일부 교인들도 카톨릭과 분명한 차이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되는대로 개인적으로나 제자반을 통하여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 교인이 함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교황권과 교회 전통의 권위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때에, 성경의 최고 권위를 앞세워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비성경적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마틴 루터'의 정신을 기억하며, 개신교는 계속해서 개혁의 불길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구습에 젖어 있는 카톨릭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있는 교인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신교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행 금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Face Shield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또 다시 Lock down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디고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8시부터이고, 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해 학교에서 과제물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예배에 진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으며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비교적 규정에서 자유로운 수요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와 각종 기도회 모임은 그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가능성은 더 높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선교를 멈추면 안된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헌신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고, 여전도회원들은 매일 성경 묵상을 생활화하고 있어서,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깊이와 넓이로 이곳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 선교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어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 116:5)**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